

언젠가 우연히 여고생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질문을 던져보았다. “가족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한 학생이 서슴없이 “둘만 낳으면 될 것 아니냐”고... “아냐. 학생들이 아이를 낳을 시기에는 둘도 많아. 먹을 것, 입을 것, 교육, 병원등 전부 부족해질 걸” 하는 응수에 “먹는 것이야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될 수 있도록 될텐데요 뭐”하고 맞선다. 아이들이 믿고 있는 과학의 힘이 바로 이런데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섬찟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기는 여러가지로 경이할만한 과학적인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아닌게 아니라 우주선 안에서는 식사를 알 하나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에 알 하나를 먹고 살지는 않고 있고 더 큰 쾌락이 있기 전에는 식사를 맛있게 하는 일도 사람들이 사는데 보람있는 일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여고생들도 지금쯤은 이미 자신이 사는 생애에서 음식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과학의 발달이 사람의 생활을 놀랄만큼 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또 한편에서 많은 원치않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는 사실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항공기의 추락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각종 사고등 많은 경우가 과학문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관 아이를 생각해 본다. 사람 뿐아니라 동물들도 각기 제새끼를 원하고 사랑한다. 그것은 또 종족보존(種族保存)의 본능이기도 하다. 부부간에 어떤 이웃들간에 아이가 없다는 일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있는 것이 정상이므로 분명히 이상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인공적인 방법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험관아기가 탄생될 수 있는 경우란 많은 수의 불

임증 부부의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은 전부 정상인데 다만 양쪽 난관(卵管)이 폐쇄되어 정자나 수정란의 통과가 안된다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방법이다. 물론 불임증의 원인중 가장 많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긴 한데 결코 모든 불임 부부에게 다 배울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아닌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하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것이

종족보존의 倫理

金 貞 泰
(韓國인구보건연구원·
연구위원)

종고 당연하다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관 아기는 그 조작과정에서 어찌면 도리킬 수 없는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켰던 영국의 의사인 스탠토우 박사에게 “만일 조작과정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부분의 잘못이라도 있어서 그 때문에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윤리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1979년 내한시 기자 인터뷰에서)을 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내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점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다시

는 시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슬그머니 말을 뺐다. 그러면서 그는 그후에도 다시 시도한바 있다. 미세한 부분의 잘못이었다라도 태아가 출산 되게 될 때까지 맹령하게 성장하게 되므로 이 크기에 따라 미세한 잘못은 큰 화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를 피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과학의 발달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상아의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의 성장과정을 검사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인공적으로 착상시킨



태아의 발육과정을 초음파 검사로 지켜볼 것은 당연하고 만일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 과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잔인하기는 하나 더 큰 불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여 이렇게 해서 정상아만을 골라서 출생시킬 수 있다. 한편 불임의 원인이 남자의 무정자(無精子)증에 있다고 할 때에 부부가 합의하여 남의 정자를 인공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마치 과거의 “씨받이 씨내림”등과도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아이는 결국 부부가 원하는 아이일 수는 없고 한쪽(이런 경우는 여자)의 아이라 해야 할 것이고 누가

아버지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속제로 남게 된다. 과거에는 씨를 준 사람 또는 아이들 키운 여자를 잔인하게 없애 버리기도 하였다니 과학의 힘을 빌리는 현재 보다 한층 가혹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토록 자손을 얻겠다는 본능이 처절하도록 강했던 것이리라.

어느 외국인 부부가 아이는 갖고 싶고 정자는 없고 하여 합의해 타인의 정자를 인공 수정하여 아이를 가졌다고 하였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5세가 될때까지 잘 지내던 부부가 결국 마음이 달라져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아이의 분양비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 아이는 내아이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은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이고 실로 경이 할만하다. 그런데 그 발달의 결과가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을 터이나 항상 유익하게만 되고 있지는 못하며 이 때문에 자연계의 질서는 크게 파괴되고 있음을 본다. 시험관아기의 경이 뒤에는 이상아(異常児)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고 남의 정자를 얻어 아이를 얻었을 때 부부간은 붕괴된다. 자연계의 질서는 섭리대로 지켜지는 것이 옳을 것인데 사람들은 과학이란 잔재주로 이를 파괴해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야생동물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마구 잡아옴으로써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고는 다시 한쪽에서 야생동물보호라는 구호로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해가던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현상과도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순간 순간 등골이 오싹해오는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달이란 것이 아닌가 싶다. 끔찍한 뉴스를 들었을 때 인공위성이 없었더라면 싶고 설명만 드러놓고 활력이 뒤따르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장수(長壽) 현상에서 고려장을 지내야 했던 옛날 얘기도 생각이 난다. 과학의 발달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도 함께 지녀가야 할 것 같다.

소위 세대차 때문일까?

요즈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팝송을 듣고 있노라면 시끄럽기만 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한다. 아무래도 중년 이상의 세대는 센티멘탈한 복고풍의 가요가 마음에 들 것이다. 이런 類의 가요는 따지고 보면 고향의 그리움이나 연인간의 이별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그래서 배경은 대개 정거장이나 항구의 부두 가이다. 제목도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나 「목포의 눈물」 식이고 「당신」과 「나」 또는 「고향」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리간」에 대한 원망이 가사에 담겨 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피난시절을 겪고 어린시절을 먼 고향에서 보낸 세대에게는 아직도 이런 옛가요의 감흥을 알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공감해 줄가를 가끔 생각해 본다.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는 이몽룡을 보내는 성춘향의 심정은 필설로 표현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거리의 벽으로 현해탄이 자주 등장했었다. 그리고 5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정거장」이나 「목포항」이 그런대로 감흥을 자아냈다.

우리나라는 좁다. 북쪽에 있는 서울과 남쪽에 있는 부산이라야 고속도로로 420km, 자동차로 5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교통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당시에는 실로 아득한 거리였다. 그리고 소설무대도 좁은 한국땅에 국한되어 있었다.

내가 소설 「회전목마」를 쓴 것이 1965년이었다. 이 소설은 구성상 여주인공 계유주가 선천적 병을 앓고 있어 애인의 곁을 떠나기로 하고 스스로 독일유학의 길을 택한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애인 안영우와 헤어지는 장면에서 소설이 시작된다. 당시 독일로 떠난다는 것은 거의 영원한 이별에 가까운 기분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따라서 소설은 한국과 독일에 떨어져 있는 두 사

람 사이의 막막한 거리감을 배경으로 끝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생판 가본 적도 없는 독일의 문헌으로 주인공을 보내놓고, 문헌의 지도를 구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갔다. 실제로 문헌에 가본 사람도 별로 없던 때였으므로 나의 이런 어설픈 수작도 그런대로 통했던 것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것이 68년이였다. 그때부

世代差와 距離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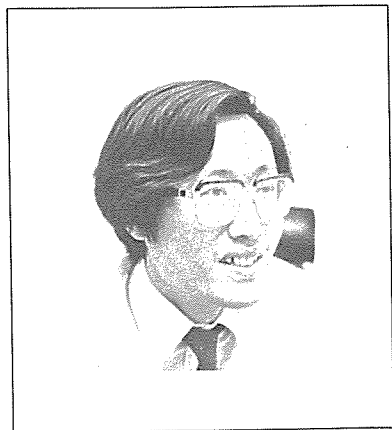
李建榮

(国土開發研究院 연구위원 ·
都市計劃學博士)

터 친구들은 하나 둘 유학길을 떠나곤 했다. 그래서 가끔 배웅을 나가곤 하면 김포공항은 울음바다였다. 젊은 혈기와 청운의 뜻만을 품고 이역만리로 떠나는 유학생과 이를 보내는 가족들의 이별은 실로 애뜻했다. 또한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으로서 고작 수백달러를 손에 쥐고 떠나던 유학길은 곧 고생길로 통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초라한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으며 「당신과 나 사이의 저 바다」를 원망하면서 「가슴아프게」를 구성지게 불러대며 향수를 달래야만 하

였다. 나 역시 이런 유학생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김포공항에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보면 분위기가 전연 다르다. 마치 축제라도 하는 듯한 들뜬 분위기가 감돌고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이별감보다는 흥분감이, 눈물보다는 웃음소리가 더 많고, 수학여행이라도 떠나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따라서 수십명의 가족이 법석대던 옛날에 비하면 송영객



도 그만큼 단출해지기도 하였다.

나 자신도 미국에 머무는 7년동안 한번도 한국에 나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요즈음 유학생들은 방학때마다 들러러 오고, 졸업 때면 취직처 알아보러 오고, 이쪽 가족들도 그쪽으로 자주 나들이를 나가곤 한다. 그 뿐인가, 생각나면 전화기를 들고 언제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상도 달라지고 지구는 좁아졌다.

그러니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이별의 부산정

거장」이 무슨 이별인가? 다이얼 세개만 더 돌리면 서울이니까. 전화가 귀하던 시절 러브레터를 쓰는 動悸나 초조함도 공감이 안갈 것이다.

해외여행도 이제는 상당히 자유화되어서 외국도 먼 거리가 아니다. 세계일주에 80일이 걸렸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다만 허물 수 없는 거리는 지척에 있는 북한 뿐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상황만 해도 역사학자 헤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한 긴 여행은 고작 15마일 정도였다고 봐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매일의 통근거리만 하여도 평균 15마일이 넘는다.

교통기술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이제는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 뿐 아니라 전국이 거의 1일 생활권이 되었다. 웬만한 곳이면 아침에 떠나 볼 일을 보고 저녁까지는 돌아올 수가 있다. 최근에는 고속전철의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과 부산이 통근권으로 확대될 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근자체가 필요없어 지고 집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통신기술은 거리감은 물론 생활패턴까지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노는 것 보다 텔레비전을 마주하거나 비디오만화에 더 흥미를 느낀다. 전화로 주문을 하고 컴퓨터로 학습을 하거나 가계부를 정리한다.

가끔 가정주부들이 모이면 남편들의 늦은 귀가 시간이 화제가 된다. 그러면 요즈음은 「삐삐」를 남편들의 허리춤에 붙여놓고 행선지를 감독하고 농담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삐삐」정도가 아니라 텔레비전 화면으로 안방에 있는 아내가 남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주할 것인가? 차라리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던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다.